

##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위한 자체 제작 영어 배치고사와 토익의 배치 기능 비교

류 란  
동국대학교

**Ryu, Ran. (2013). A comparison of the in-house English placement test and TOEIC for placement purposes for a College English Program. *Modern English Education*, 14(4), 241-261.**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of two tests, the in-house level placement test (LPT) or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 is a more legitimate tool for the placement purposes for English reading courses and to see if there is an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est scores and the course grades. Data collected from 1457 college freshmen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PT and TOEIC, the most commonly used test type for placement purposes in universities in Korea. A post-test was administered to 279 students, a subset of the participants, and the data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st scores and the course grades. The results revealed that both the LPT and TOEIC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levels; however, about 50% of the participants were shown to be misplaced when the TOEIC scores were used as the criterion. Each test scores showed a low to a moderate degree of statistical correlation with the course grades but when they were analyzed by level, the LPT and the post-test scores showed quite different results among levels; TOEIC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grades at all levels. Overall, the analysis revealed that extensive revisions are necessary in order for the LPT to work effectively as a placement test.

[in-house level placement test(LPT)/English reading/TOEIC/course grades/  
자체제작배치고사/영어강독/토익/학점]

### I. 서론

많은 국내 대학에서 재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영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많은 대학에서 교양영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양영어 교과목을 확대하고 원어민 수업을 도입하거나 확대 실시하며

교양영어 교육 목표를 실용영어 함양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어 졸업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교양 과정에 개설된 필수 또는 선택 영어 교과목의 수와 이수학점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영어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양영어 교과목의 과목 특성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목 특성과 연계된 교육과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여 적합한 레벨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배치고사는 언어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낮아서 문제가 있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Fulcher, 1997)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게 배치된 수준별 수업을 받는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의 문제점이나 취약한 점을 쉽게 파악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own, 2005).

본 연구의 대상 대학은 경북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으로 의예과와 한의대를 제외하면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어서 이들의 영어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어 읽기 능력은 교양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전공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졸업 후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므로 영어 읽기 능력 함양은 대학의 필수영어 과정에 대부분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도 1학년 두 개 학기 동안 영어강독(English Reading)을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학생의 효율적인 영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에서 자체 제작한 배치고사(Level Placement Test: LPT)를 통해 네 개 수준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강의 현장에서 자신의 실제 영어 읽기 수준보다 상위 레벨에 배치되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힘들어 하거나 아예 학점을 포기하고 장기 결석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수준보다 하위 레벨에 배치된 경우에는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이는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다. 자신의 수준과 다른 레벨에 배치된 경우, 즉 오배치된 경우는 학생의 학습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교수자에게도 수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오배치의 원인으로 학생 자신의 불성실한 배치고사 응시 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LPT의 배치고사로서의 기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LPT는 해당 대학의 교양 필수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배치를 위해 영어 원어인 교수가 배치고사 제작 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체 제작한 것으로 기초적인 회화나 청취에 필요한 표현이나 문법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어강독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과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LPT가 배치고사로서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상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즉 생활 영어 중심의 문제 유형인 LPT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위 레벨에 배정되었지만 영어강독의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영어 읽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항으로 시험을 구성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 받은 후 이를 영어강독 교과목의 배치고사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배치고사를 개발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당장 실행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대학에서는 학기마다 1회 시행되는 모의 토익 점수가 LPT 점수보다 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을 더 잘 반영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모의 토익을 배치고사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4년제 대학에서 교양영어 교과목의 배치고사로 토익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김성혜, 임자연, 2013). 그러나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해당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을 고려할 때 토익에 의한 수준별 배치는 하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역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PT와 토익, 두 시험에 의한 레벨 배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어떤 시험이 학생들을 동질 집단으로 배치하는데 더 적합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 수능과 토익의 배치고사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인 조수경과 박찬호(2011)를 참고한다. 또한 LPT에 의해 레벨이 배정되어 한 학기 동안 영어강독 교과목을 수강한 후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에 알맞은 레벨에 배치되어 수강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현행 배치고사의 배치 기능에 대한 평가에 필요해 보인다. 이상적인 배치고사는 강의의 목적과 부합되는 능력을 측정하여 수준별로 나누는 기능에 더하여 학습의 결과인 학업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Nakamura, 2007). LPT와 토익 중 어떤 유형의 시험이 학점과 상관성이 높은지를 살펴본다면 현행 배치고사의 배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두 시험의 시행 시점이 시간적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LPT와 유사한 유형과 난이도의 사후시험을 학기말에 실시하여 LPT 유형의 시험 점수와 학점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체 제작 배치고사인 LPT에 의한 수준별 배치는 토익에 의한 배치와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는가?
- 2) 학생들은 LPT에 의해 자신의 영어 능력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 3) LPT 유형의 시험 점수와 토익 점수는 학업 성취도인 학점과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 II. 선행 연구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의 분반은 대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과별이나 계열별로 편성되기도 하고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준별로 편성된다. 수준별 교과를 운영하는 경우, 학생 개인의 판단에 의해 수준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준에 의해 수준별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대학의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배치 기준으로 사용되는 유형에는 고교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사용되는 경우와 배치고사를 실시하여 그 성적에 따라 수준별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김성혜와 임자연(2013)에 따르면 교양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2%가 배치고사에 의해 교양 필수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이 운영되고 있었다. 대상 대학 다섯 곳 중에서 두 곳에서만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된 K. A. Yu, C. Y. Moon과 S. K. Shin(2007)의 결과와 비교하면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치고사에 관련한 연구는 주로 배치고사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동일 수준의 집단으로 배치할 수 있는가(Fulcher, 1997; Wall, Clapham & Alderson, 1994)와 배치고사 결과는 교수자에게 어떤 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 정보를 제공하는가(Green & Weir, 2004; Nakamura, 2007)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Brown(1996)에 의하면 배치고사는 시행 프로그램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Hughes(2003)는 배치고사가 사용자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의해 직접 개발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 대학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시행 프로그램의 목적에 알맞은 배치고사를 자체 제작하여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양영어 교과목의 배치고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인 김성혜와 임자연(2013)에 의하면 16개 대상 대학 중 토익이 11개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어서 전체의 68.8%였고, 또한 수강 후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토익 유형의 시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약 70%였다. 이는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의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에서 듣기와 읽기 유형의 시험인 토익을 배치고사와 향상도 측정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수경과 박찬호(2011)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포함한 혼합방식(mixed methods)을 이용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외국어 영역 점수와 토익 점수 중 어떤 시험이 영어회화 교과목에 대한 배치고사로 더 적합한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의토익을 배치고사로 활용하려면 3월 개학 이전에 모든 신입생이 토익시험에 응시해야 하지만 제반 여건상 어려워 결국 수능 점수로 수준별 분반을 나누었고 이후 토익에 응시하여 토익과 수능 점수가 모두 있는 학생들 2474명을 대상으로 수능 외국어 영역 점수에 의해 배치된 수준별

분반이 모의 토익 점수에 의해 재배치되었을 때의 오배치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0.99%의 학생들의 분반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교수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여 비교한 결과 50% 이상이 문제가 있거나 오배치된 것으로 답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검증하는 수능보다는 전반적인 영어의 능숙도를 측정하는 토익 시험이 배치고사로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도 역시 가장 이상적인 배치고사는 가르치는 내용을 검사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험이지만 제반 여건 상 새로운 시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부합하면서 오배치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듣기와 읽기와 같은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배치고사가 말하거나 쓰기와 같은 표현 능력을 목표로 하는 수업의 수준별 분반에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Wesche, Paribakht와 Ready(1993)는 회화 수업의 배치고사로 적합한 시험 유형으로 읽기와 듣기 시험이 가장 잘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K. Pyo(2001)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개발한 듣기와 읽기 유형의 배치고사 점수와 영어에세이 작문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다. 배치고사에 응시한 316명의 외국인 학생들은 듣기와 읽기 능력이 우수할수록 에세이작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읽기와 듣기 능력과 에세이 작문 능력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어 배치고사와 학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ESL 프로그램의 배치고사 결과와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의 평점 평균(GPA)과의 상관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비 영어권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할 때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영어 배치고사 점수와 해당 영어 교과목 학점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해당 대학에 2013년에 입학한 신입생들로 LPT와 모의 토익에 모두 응시하여 두 가지 시험 성적이 있는 1457명과 둘째, 학기말에 LPT의 독해 파트 50문항(이후 사전RC)와 유사하게 구성된 사후RC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LPT와 토익 점수가 모두 있는 279명이다. 신입생들은 첫 학기에 교양필수 교과목인 영어회화 1(English Conversation 1)과 영어강독 1(English Reading 1)을 수강하며 이때 영어회화

수업은 5개의 레벨(S-advanced, A-high intermediate, B-intermediate, C-high beginner, D-beginner)로, 영어강독 수업은 A~D의 4개 레벨로 나뉘어져 수강하게 된다. 이것은 영어강독 교과목이 면제인 한의예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S 레벨에 40%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고 영어강독 S 레벨을 운영하는 것은 제반 여건 상 어렵기 때문에 이들 학생들은 A 레벨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표 1은 LPT와 모의토익에 모두 응시한 신입생 1457명이 단과 대학 별로 각 레벨에 배정된 인원 수를 보여준다. 단과 대학 별 정원이 다르므로 레벨에 배정된 인원과 단과 대학의 영어수준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음악, 미술, 체육 전공은 실제 소속 단과 대학은 다르지만 예체능 전공으로 분류하였다.

표 1  
단과 대학 별 영어 레벨 배정 인원

대학	S레벨	A레벨	B레벨	C레벨	D레벨	합계
경영대학	12	64	133	118	33	360
과학기술대학	3	70	132	143	40	388
불교문화대학	0	7	14	35	18	74
사범대학	1	21	38	20	5	85
사회대학	3	23	57	56	21	160
인문대학	6	43	100	117	24	290
자유전공	0	3	11	14	1	29
예체능전공	0	2	10	22	37	71
합계	25	233	495	525	179	1457

## 2. 연구 절차

신입생들은 3월 입학식 이전인 2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사이에 온라인 배치고사인 LPT에 응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레벨 배치가 이루어졌다. 한의예과와 간호학과를 제외한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13주차 강독 수업시간에 모의 토익이 실시되었고, 15주차 강독 수업시간에 LPT의 독해 파트 50문항(사전RC)과 동일한 문항 수와 유사한 정도의 난이도로 구성된 사후RC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후RC 시험은 학기 초와 비교하여 향상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레벨에서 2~4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강의 진도 등을 고려하여 중간고사 이후 공휴일이 없어서 다른 요일 강의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월, 화요일 강의 중에서 주로 사후RC 시험반이 임의로 선정되었다. 영어강독 수업에 S 레벨은 없으므로 A, C, D 레벨에서 각 2개 반과 B 레벨의 4개 반에서 사후RC 시험이 실시되었다. 학기말 학점이 확정된 후 사후RC 시험반의 학점을 수합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수준별 분반 배치고사(Level Placement Test: LPT)

LPT는 해당 대학의 교양 필수 영어 교과목의 수준별 배치를 위해 영어 원어민 교수가 배치고사 제작 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체 제작하였고, 2009년 신입생부터 배치고사 결과에 의해 영어회화와 영어강독의 수준별 분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LPT는 표 2에서와 같이 청해와 독해, 두 영역에서 각각 25문항의 네 가지 문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시간은 한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제 문항의 예시가 보여 주듯이 전반적으로 기초적인 영어회화나 청취에 필요한 표현과 간단한 의문문 만들기, 시제 일치 등에 관한 문법을 물어보는 사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치고사가 개편되지 않는 한 현행의 LPT가 배치고사로 활용될 것이므로 전체 문항을 다 수록하는 것은 어렵고 청해 파트는 영어강독 교과목과 무관하므로 독해 파트의 두 가지 문제 유형에서 10개 문항씩 부록에 정리하였다.

표 2  
LPT 문제 구성 및 문항 예시

구성	문항 수	문항 예시	
청 해	청취력	25	(1) What does the girl look like? (a) She likes wearing white pants. (b) She looks like Angela. (c) He's tall and wearing white. (d) She's short and good looking.
	듣고 응답하기	25	(26) Listen and then choose the correct answer. (a) They'll come tomorrow. (b) They come here often. (c) They came last week. (d) They've come here before.
독 해	문법	25	(51) I _____ to the beach last summer. (a) 'm going (b) went (c) did (d) will go
	의문문 만들기	25	(76) Q: _____ a good weekend? A: Yeah, I went to the beach. (a) Did you have (b) Where did you go (c) Did you enjoy (d) What did you do

표 3은 독해 파트 50문항의 문제 유형을 분석한 것으로 한 개 문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법 항목이 포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문법 파트는 전체 문항 수가 25개 보다 많이 표시되었다. 의문문 만들기 파트는 의문문의 종류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분류하기 어려워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동사 종류와 시제 종류 별 질문 수를 표시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LPT 문항은 복잡한 문법이나 어휘, 독해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영어 회화 시간에 주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구성할 때 필요한 문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LPT 독해 파트 문제 유형

종류		문항 수	종류	문항 수	
문 법	지시 형용사	1	형용사 보어	1	
	be 동사	3	수량 형용사(many, much)	2	
	단순 현재	5	비교급	1	
	단순 과거(시간 부사구)	2	빈도 부사	1	
	진행(과거, 현재)	2	접속사 but	1	
	현재 완료/진행	2	대명사	1	
	be going to	1	명령문	1	
	조동사-동사 원형	2	부정문	1	
	wh-Q	5	어휘/숙어적 표현	4	
	의 문 문	동사 종류		시제 종류	문항 수
(1) yes/no -question		be 동사	현재, 현재 진행, 과거	4	
		조동사 can, could	현재, 과거	2	
만 들 기		일반 동사	단순 현재(3인칭단수), 현재 진행, 단순 과거, 현재 완료	6	
		(2) wh- question	be 동사	현재, 현재 진행	3
			조동사 can, could	현재, 과거	1
	일반 동사	단순 현재(3인칭 단수, 빈도 부사), 현재 진행, 단순 과거, 현재 완료	9		

## 2) 모의 토익

LC 50문항, RC 50문항으로 구성된 총 100문항의 모의 토익을 13주차 영어강독 수업시간에 실시하였고 LPT 점수를 기준으로 한 수준별 분반을 토익 점수에 의한 가상 레벨로 재배치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 3) 사후RC 시험

한 학기 동안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학습 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매 학기마다 모의 토익을 실시해 왔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토익 점수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등의 결과를 보여 토익에서 다루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양영어 수업의 효과를 토익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회의론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배치고사

점수가 있으므로 LPT와 유사한 시험을 구성하여 학기말에 실시하여 교양영어 수업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토익 보다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1학기 말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청해 파트를 다시 제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후RC 시험은 LPT의 독해 파트 50문항과 동일한 문법과 유사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로 문제 은행을 만들고 이를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예를 들어, 표 2의 문항예시 (51)번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구 'last summer'와 일치하는 단순과거시제 형태의 동사를 고르는 문제다. 사후검사에서도 동일한 문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She \_\_\_\_\_ lunch two hours ago." 의 빈 칸에 알맞은 표현을 주어진 선택 문항 ㉠ will have ㉡ had ㉢ did ㉣ is having 중에서 고르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유형과 난이도로 조정하였다.

LPT와 토익 점수가 학기말 학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함에 있어서 두 시험의 시행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다소 무리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15주차에 실시한 사후RC 결과를 토익 결과와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1.0)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전체 신입생의 LPT 자료와 LPT와 모의 토익에 모두 응시한 1457명의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정리하고,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레벨 간 유의한 평균 점수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LPT와 토익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했다. LPT에 의한 배치 비율과 모의토익 점수를 고려하여 토익에 의해 수준별로 재배치한 후, 본래의 레벨과 달라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LPT에 의해 참가자 자신의 영어 능력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비율은 레벨 별로 분석하였다. 사후RC 시험을 실시한 4개 레벨의 10개 반의 LPT, 사전RC, 사후RC 및 토익 점수의 기술통계량을 구하고, 이들 시험 점수가 각각 학점과 어떤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1. 자체 제작 배치고사인 LPT에 의한 수준별 배치는 토익에 의한 배치와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이는가?

1학년 초에 이루어지는 수준별 배치는 과거 신입생들의 영어 수준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미리 정해 둔 레벨 별 배치 비율에 의해 해당 년도 신입생들의 LPT 점수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는 전체 신입생 2057명 중 LPT 미 응시자 203명을 제외하고 총 1854명을 대상으로 한 영어 레벨 배정 현황이다. 예정된 배정 비율과 실제 배정된 인원 및 배정 비율, 각 레벨의 점수 구간을 보여 준다. C 레벨에 가장 많은 비율인 33.4%가 배정되었고 B 레벨에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배정되었다. 각 레벨의 점수 구간은 S 레벨이 가장 차이가 작았고 하위 레벨로 갈수록 점수 차이가 커졌다.

표 4  
LPT에 의한 영어 레벨 배정

레벨	예정 비율(%)	실제 배정 인원(%)	점수 구간(점수 차이)
S	2~3	45 (2.4)	92-100 (8)
A	17~18	344 (18.6)	75-91 (16)
B	30~35	604 (32.6)	58-74 (16)
C	30~35	619 (33.4)	35-57 (22)
D	15	242 (13.0)	3-34 (31)
전체	100	1854 (100)	

토익 응시 대상이 아닌 한의예과 및 간호학과 학생들을 제외하고 토익과 LPT, 두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 점수가 있는 1457명을 대상으로 하여 LPT와 토익 점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689$ ,  $p<.01$ ). 그러나 표 5에 표시하였듯이 각 레벨의 토익 최저점과 최고점을 예로 들어 보면 LPT 점수와 토익 점수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S 레벨의 토익 최저점과 최고점을 받은 참가자의 LPT점수는 각각 93점과 92점으로, 오히려 최저점을 받은 학생의 LPT 점수가 1점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A 레벨에서도 토익 최저 130점과 최고 810점을 받은 두 학생의 LPT 점수 차이는 5점에 불과하였다. C와 D 레벨의 경우에는 낮은 LPT 점수에 비해 토익 최고점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레벨을 재배치한다면 LPT 레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LPT 레벨의 토익 점수 (LPT와 토익 모두 응시자 대상)

LPT 레벨	인원수	LPT평균	토익		
			최저 (LPT점수)*	최고 (LPT점수)**	평균
S	25	93.8	330 (93)	910 (92)	652.8
A	233	81.6	130 (80)	810 (85)	466.4
B	495	65.5	190 (58)	570 (74)	331.9

C	525	47.4	40 (36)	750 (45)	242.8
D	179	26.5	50 (28)	520 (20)	188.6
합계	1457				

(\*)토익 최저점과 (\*\* 토익 최고점의 LPT 점수

표 4의 레벨 예정비율에 맞추어 모의 토익 점수에 의해 가상의 레벨을 배정하면 표 6과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LPT에 의한 배정 비율과 유사하게 토익 점수에 의해 재배치하게 되면 표 6과 같은 정도로 상위 레벨에서의 점수 차이가 커지게 되는 것을 보여 주는 가상의 레벨이다. LPT 레벨과 달리 토익 점수에 의한 레벨은 S 레벨의 점수 구간 차이가 가장 컸고 B~D 레벨에서는 점수 구간의 차이가 작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LPT의 경우 높은 점수대에 학생들이 몰려 있어서 상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고, 토익은 낮은 점수대에 학생들이 몰려 있어서 하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토익 점수에 의한 가상 영어 레벨 배정

가상 레벨	배정 인원	배정 비율%	점수 구간 (점수 차이)	평균 점수
S	26	1.8	670-910 (240)	738
A	247	17.0	430-660 (230)	511
B	468	32.1	290-420 (130)	347
C	448	30.7	190-280 (90)	236.1
D	268	18.4	60-180 (120)	138
합계	1457명	100%		

레벨에 따라 두 시험의 평균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LPT 점수(F=3348.76, df=4, p<.01)와 토익 점수(F=351.191, df=4, p<.01)는 각각 레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Scheffe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모든 레벨 간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다.

표 7은 LPT와 토익, 두 시험에 의한 레벨 일치 정도를 비교한 것으로 LPT 레벨과 토익 레벨이 일치하는 부분은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다. 레벨 커트라인을 어떤 점수로 정하느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의 일치 정도는 물론 달라질 것이지만 LPT 배정 비율에 따라 동일 점수를 받은 참가자의 수를 고려하여 모의 토익에 의한 가상 레벨의 커트라인을 정하였다. 특히 점수가 낮을수록 동일 점수가 몰려 있어서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점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레벨 배치를 할 때 커트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표 7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만 LPT 레벨과 토익 레벨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시험에 의한 레벨 일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A 레벨로 54.9%이었고 가장 낮은 일치 정도를 보인 것은 S 레벨로 44%이었다. 토익점수에 의해 레벨을 재배치하는 경우 S 레벨은 레벨 일치율보다 높은 52%가 A 레벨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고 A 레벨도 역시 한 단계 하위 레벨인 B 레벨로 하향 조정되어야 하는 비율이 32.6%로 높았다. LPT에 의한 배정 비율과 유사하게 인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S와 A 레벨의 토익 점수 구간은 각각 240점과 230점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LPT 레벨보다 한 단계 하위 레벨로 조정되어야 하는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LPT가 상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B와 C 레벨도 한 단계 하위 레벨로 배정되어야 하는 비율이 상위 레벨로 배치되어야 하는 인원보다 많았고 D 레벨은 C 레벨로 배정되어야 하는 인원이 36.9%이었다.

표 7  
LPT 레벨과 토익 레벨의 일치 정도

		토익 레벨					
		S	A	B	C	D	합계
S	인원	11	13	1	0	0	25
	%	(44.0)	52.0	4.0	0.0	0.0	
A	인원	14	128	76	12	3	233
	%	6.0	(54.9)	32.6	5.2	1.3	
B	인원	0	87	245	133	30	495
	%	0.0	17.6	(49.5)	26.9	6.1	
C	인원	1	16	131	237	140	525
	%	0.2	3.0	25.0	(45.1)	26.7	
D	인원	0	3	15	66	95	179
	%	0.0	1.7	8.4	36.9	(53.1)	
합계		26	247	468	482	268명	1457

\*\*\* $p < .001$

## 2. 학생들은 LPT에 의해 자신의 영어 능력이 적절하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사후RC 시험반 중에서 각 레벨에서 1~2개 반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배정된 레벨이 자신의 영어 능력에 알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하였다. 표 8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76%가 자신의 영어 능력에 알맞은 레벨에 배치되었다고 응답하였고 24%의 응답자는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레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D 레벨로 60%이었고 C 레벨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23.3%였다. 또한 D 레벨보다 하위 레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단계 하위 레벨로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16.7%로 높은 편이었다.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D 레벨을 제외한 다른 레벨에서는 모두 현재 레벨보다 하위 레벨로 재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7에서 토익 점수에 의해 재배치된다면 D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에서 현재보다 한 단계 하위 레벨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표 8**  
레벨 배정 설문 결과

설문 문항	A 레벨(%)	B 레벨(%)	C 레벨(%)	D 레벨(%)	합계(%)
적정레벨배치	27(84.4)	68(77.3)	28(84.8)	18(60)	139(76.0)
배치오류	5(15.6)	20(11.8)	5(15.2)	12(40)	44(24.0)
상위 레벨희망	2(6.3)	5(5.7)	1(3.0)	7(23.3)	16(8.7)
하위 레벨희망	3(9.4)	15(17)	4(12.1)	5(16.7)	26(14.2)
합계	32명	88명	33명	30명	183명

**3. LPT 유형의 시험 점수와 토익 점수는 학업 성취도인 학점과 상관관계를 보이는가?**

표 9는 사후RC 시험을 실시한 10개 분반의 전체 참가자 중에서 LPT, 사후RC, 토익 시험에 모두 응시한 279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 배치고사인 LPT 점수, LPT의 독해파트인 사전RC 점수, 사후RC 점수, 그리고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LPT 평균은 전체 참가자의 평균 57.2점과 거의 동일하고 토익 평균은 전체 참가자의 평균 309.2점보다 약간 낮다. 사전RC 점수는 28.4점으로 LPT 점수의 청해와 독해파트의 점수가 거의 비슷함을 보여주며, 사후RC 점수는 35점으로 사전RC에 비해 6.6점 향상되었다.

**표 9**  
사후RC 시험반 전체의 평균 점수 (N=279)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LPT	57.3	19.499	6	91
사전RC	28.4	10.152	3	47
사후RC	35.0	9.49	9	49

토익	306.8	129.906	65	810
----	-------	---------	----	-----

사후RC 시험반 전체의 각 시험 점수와 학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시험 점수와 학점은 유의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10). 토익이 학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r=.550, p<.01$ ) 사후RC가 뒤를 이었다( $r=.489, p<.01$ ). 학기 초에 실시한 LPT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학점과 매우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284, p<.01$ ). 사후RC는 사전RC와 난이도와 문제 유형이 유사하지만 사전RC보다 학점과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사후RC를 실시한 시점이 학기말이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학점을 받은 학생은 학기 동안 진행된 수업에 성실하게 임했고 그 결과 영어 능력이 향상되어 결국 사후RC 점수와 학점의 상관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0

사후RC 시험반 전체의 점수 간 상관관계 (N=279)

	LPT	사전RC	사후RC	토익	학점
LPT	1				
사전RC	.957**	1			
사후RC	.755**	.739**	1		
토익	.636**	.590**	.672**	1	
학점	.284**	.268**	.489**	.550**	1

\*\* $p<.01$ 

모든 레벨에 동일한 비율로 학점이 부여된다면 표 10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맞겠지만 해당 대학에서는 레벨에 따라 부여되는 학점 비율이 다르다. 따라서 각 레벨 별로 배치고사와 학점의 상관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표 11은 해당 대학의 레벨 별 학점 배정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표 11

교양필수 영어 레벨 별 학점 부여 비율

학점	S 레벨	A 레벨	B 레벨	C 레벨	D 레벨
A	절대평가	55%	33%	23%	15%
B		45%	47%	37%	30%
C, D, F	표시된 A, B 학점은 각 레벨에 부여 가능한 최대값이고, C, D 학점은 제한 없음.				

A 레벨의 학점과 시험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12에 의하면 A 레벨의 학점은 토익 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r=.567, p<.01$ ), 다른 점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LPT 뿐만 아니라 사후RC 점수도 학점과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므로, LPT 유형의 시험은 A 레벨의 학기말 학점과 연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2**  
A 레벨 점수 간 상관관계 (N=51)

	LPT	사전RC	사후RC	토익	학점
LPT	1				
사전RC	.658**	1			
사후RC	.367**	.26	1		
토익	.284*	.076	.427**	1	
학점	-0.076	-0.18	.014	.567**	1

\*\* $p<.01, *p<.05$

B 레벨의 경우 토익 점수가 학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 $r=.532, p<.01$ )가 있었으며, 사후RC 점수가 다음으로 높았으나( $r=.505, p<.01$ ) LPT 점수는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091, p<.05$ ).

**표 13**  
B 레벨 점수 간 상관관계 (N=116)

	LPT	사전RC	사후RC	토익	학점
LPT	1				
사전RC	.691**	1			
사후RC	.256**	.195*	1		
토익	.184*	.018	.418**	1	
학점	.091	.037	.505**	.532**	1

\*\* $p<.01, *p<.05$

C 레벨은 A와 B 레벨과는 달리 사후RC를 포함한 LPT 유형의 시험과 학점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토익도 유사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464, p<.01$ ). 따라서 C 레벨에서는 LPT 유형의 시험과 토익 점수가 모두 학점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들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학점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C 레벨 점수 간 상관관계 (N=57)

	LPT	사전RC	사후RC	토익	학점
LPT	1				
사전RC	.746**	1			
사후RC	.228	.424**	1		
토익	.270*	.145	.216	1	
학점	.444**	.342**	.369**	.464**	1

\*\* $p < .01$ , \* $p < .05$

D 레벨에서도 토익이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r=.492$ ,  $p < .01$ ) 사후RC 점수가 학점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694$ ,  $p < .01$ ). A와 B 레벨과 마찬가지로 LPT는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15  
D 레벨 점수 간 상관관계 (N=55)

	LPT	사전RC	사후RC	토익	학점
LPT	1				
사전RC	.788**	1			
사후RC	-0.242	-0.181	1		
토익	-0.166	-0.006	.644**	1	
학점	-0.043	-0.012	.694**	.492**	1

\*\* $p < .01$ , \* $p < .05$

레벨에 따라 LPT를 비롯한 시험 점수와 학점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을 요약해보면, LPT와 학점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C 레벨뿐이었고, 다른 레벨에서는 LPT와 학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사후RC 시험은 A 레벨을 제외한 다른 레벨에서는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토익은 모든 레벨에서 학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학점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당 대학에서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에 대한 배치고사로 자체 제작한 시험이 영어강독 교과목의 수준별 분반을 위해 변별력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연구의 주안점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모의토익 점수에 의해 레벨을 재배치하고 두 시험에 의한 레벨 일치/불일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LPT 유형의 시험과 토익 중 어떤 시험이 학업성취도인 학점과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레벨에서 LPT 점수와 토익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시험 유형이 모두 큰 덩어리로 수준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LPT에 의해 배치된 레벨과 토익에 의해 배치된 가상 레벨은 50% 정도만 레벨이 일치하였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는 토익 시험에 의해 분류했을 때 레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능력 수준이 LPT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6%로 두 시험에 의한 레벨 일치 비율보다 훨씬 높았으며 재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보다 한 단계 하위 레벨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상위 레벨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의 영어 읽기 수준보다 높은 레벨에 배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위 레벨의 경우 LPT 점수는 거의 유사하지만 토익 점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LPT가 상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LPT 유형의 시험이 레벨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점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약한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에 비해 토익은 모든 레벨에서 학점과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LPT 유형의 시험보다는 토익 유형의 시험이 수준별 레벨 배치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며 학습의 결과인 학점과도 상관성이 더 높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토익을 활용하여 향후 기존의 배치고사인 LPT를 보다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영어강독 교과목에 대한 레벨이 잘못 배치된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한 원인으로 LPT의 배치 기능을 토익의 배치 기능과 비교하는 것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배치고사 자체의 문제 이외에도 오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LPT 점수에 의해 수준별 레벨을 배치했다고 하지만 점수만으로 레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레벨 별 배정 비율을 미리 결정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 점수 순서대로 수준별 배치한 것이다. 이는 3월 개학 직전에 레벨 배치가 이루어지므로 각 레벨의 분반 수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개학 후 교수 배정, 레벨 별 교재 확보 및 강의실 배정 등 행정상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신입생마다 영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 정해 두었던 레벨 배정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레벨 오배치를 양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몇 년간의 배치고사와 모의 토익 자료 등을 분석하여 레벨 배정 비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LPT 점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온라인-오프라인 시험 방식의 차이 때문에 온라인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제한시간과 같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자신의 영어 수준보다 더 낮은 시험 결과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LPT 응시 주의사항에 의하면 “모르는 문제를 추측하여 정답이 되면 본인의 수준보다 높은 레벨에 배치되어 성적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모르는 문제는 답을 표시하지 말고 비워두라”고 되어 있다. 모든 학생들이 주의사항을 준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의사항대로 답란을 비워 두어 감점이 된 학생이 많다고 가정할 경우, 레벨이 낮을수록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 ‘best guess’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더 낮은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후RC 시험은 수업시간에 실시되었고 학기말 학점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잘 모르는 문제의 경우에도 최선의 어렵짐작으로 시험에 임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컸을 수 있다. 정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높은 레벨에 배정된다면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히 낮은 레벨로 배정될 수 있도록 아는 문제지만 일부러 오답을 표시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LPT 시험 방식이나 응시 태도에 관한 부분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차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Reschly와 Reschly(1979)는 “시험결과에 의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감소되거나 박탈되는 경우, 그 시험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p. 357). 효과적인 배치고사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진 교과 과정과 연계된 시험 항목을 개발하고 배치고사 점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영어읽기 수준을 구분할 수 있음과 동시에 레벨에 따라 부족한 읽기 능력을 가려낼 수 있는 배치고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LPT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LPT 문항의 수준이 상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고 토익은 하위 레벨에 대한 변별력이 낮다. 따라서 LPT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측정을 통해 각 문항의 변별력 정도를 분석하여 변별력이 낮은 문항은 제외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며 LPT 문항과 토익 문항을 조합하여 변형된 배치고사를 만든다면 영어읽기 수준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레벨 간 변별력은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과거 신입생의 LPT 점수와 토익 점수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레벨 배정 비율과 커트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오배치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본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배치고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모든 결과는 해당 대학에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분석 대상인 시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결시하였거나 시험이 면제된 경우와 어떤 이유에서든 F학점을 받은 경우도 역시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점수가 모두 있는 경우에 국한되며 전체 신입생의 LPT 점수와 토익 점수, 그리고 학점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참고문헌

- 김성혜, 임자연. (2013).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현대영어교육*, 14(2), 263-290.
- 조수경, 박찬호. (2011). 대학영어 프로그램을 위한 배치고사 연구: 수능과 TOEIC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12(3), 368-383.
- Brown, J. D. (1996). *Testing in language program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Regents.
- Brown, J. D. (2005). *Testing in language program: A comprehensive guide to English language assessment*. New Edition. New York: McGraw-Hill.
- Fulcher, G. (1997). An English language placement test: issues in reliability and validity. *Language Testing* 14(2), 113-138.
- Green, A. B., & Weir, D. J. (2004). Can placement tests inform instructional decisions? *Language Testing*, 21(4), 467-494.
- Hughes, A. (2003).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kamura, Y. (2007). A Rasch-based analysis of an in-house English placement test.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JALT Pan-SIG Conference, Sendai, Japan*, 97-109.
- Pyo, Kyong-hyon. (2001). Construct validation of a placement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English Teaching*, 56(4), 163-186.
- Reschly, D. J., & Reschly, J. E. (1979). Validity of WISC-R factor scores in predicting achievement and attention for four socio-cultural group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7, 355-361.
- Wall, D., Clapham, C., & Alderson, J. C. (1994). Evaluating a placement test. *Language Testing*, 11, 321-344.
- Wesche, M., Paribakht, S. T., & Ready, D. (1993). *A comparative study of four placement instrument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Language Testing Research Colloquium, Cambridge, England.
- Yu, Kyung-Ah, Moon, Chae-Young, & Shin, Sang-Keun. (2007). Placement practices in university English language programs in Korea. *Foreign Language Education*, 14(4), 27-48.

## 부록

## 배치고사(Level Placement Test) 독해 파트 문항 예시

Part 3 Choose the correct word(s) to complete the sentences.

51. I \_\_\_\_\_ to the beach last summer.

- (a) 'm going (b) went (c) did (d) will go

52. Q: How much are \_\_\_\_\_ shoes?

A: They're fifty-five dollars.

- (a) this (b) some (c) those (d) they

53. What are you \_\_\_\_\_ do in Japan?

- (a) will (b) go to (c) going to (d) doing

54. Q: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A: I have 2 brothers but I \_\_\_\_\_ sisters.

- (a) don't have no (b) have none (c) have a (d) don't have any

55. Do you have \_\_\_\_\_ money?

- (a) any (b) many (c) little (d) a lot

56. I \_\_\_\_\_ going to \_\_\_\_\_ a trip overseas.

- (a) am / go (b) will / take (c) am / take (d) will / make

57. She can \_\_\_\_\_ the piano.

- (a) to play (b) play (c) plays (d) playing

58. She \_\_\_\_\_ tall and \_\_\_\_\_ black, curly hair.

- (a) has / is wearing (b) is / is wearing (c) is / has (d) does have / is

59. \_\_\_\_\_ to school today?

- (a) Do they walk (b) Are they walk (c) Do they walking (d) Are they walking

60. Who \_\_\_\_\_ tennis with?

- (a) does he playing (b) does he play (c) is he play (d) he is playing

Part 4 Choose the correct questions.

76. Q: \_\_\_\_\_ a good weekend?

A: Yeah, I went to the beach.

- (a) Did you have (b) Where did you go (c) Did you enjoy (d) What did you do

77. Q: \_\_\_\_\_ they usually do on Saturdays? A: They go hiking.

- (a) What do (b) Where are (c) Where do (d) What

78. Q: \_\_\_\_\_ any bananas?

A: No, we don't.

- (a) We don't have (b) Do we have (c) There are (d) We are not

79. Q: \_\_\_\_\_?

A: She teaches English.

- (a) What is she do (b) What does she doing  
(c) What she does (d) What does she do

80. Q: How \_\_\_\_\_? A: She drinks it every morning.  
① many times does she drink coffee      ② many coffees does she drink  
③ often does she drink coffee            ④ does she drink coffee
81. Q: \_\_\_\_\_? A: I'm crazy about rock music.  
① What music is you like                  ② What do you like music  
③ What music you like                      ④ What music do you like
82. Q: \_\_\_\_\_ on the weekend? A: They like to play soccer.  
① What are they like playing              ② What they like doing  
③ What do they like play                   ④ What do they like to do
83. Q: \_\_\_\_\_? A: He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milk.  
① Where did he go                          ② Where he went  
③ Where was he go                          ④ Where does he buy milk
84. Q: \_\_\_\_\_ have any children? A: No, he doesn't.  
① Do he    ② Does he    ③ He is    ④ Is he
85. Q: \_\_\_\_\_? A: He's wearing a green striped t-shirt.  
① What's his t-shirt                          ② Is he wearing a t-shirt  
③ What's he wearing                        ④ Who's wearing a green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류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  
780-714 경북 경주시 동대로 123  
Tel: (054) 740-4764/ H.P.: 010-2050-9743  
Email: ranuran@dongguk.ac.kr

Received 14 September 2013  
Revised 4 November 2013  
Accepted 16 November 2013